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배 포 일	2022년 6월 24일	매 수	9매
	보도일시	배포즉시		
자료문의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	부 장	이 정 백	033-739-2101
		팀 장	김 윤 정	033-739-2107
배포부서	고객홍보실 홍보기획부	부 장	이 호	033-739-0321
		팀 장	이 지 영	033-739-0351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아 -
- 최근 5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 -

<주요 내용>

- [우울증] 2021년 환자수 93만 3,481명, 2017년 대비 35.1% 증가
1인당 진료비 56만 4,712원, 2017년 대비 28.5% 증가
 - (연령대별) 2021년 20대 17만 7,166명, 전체 환자의 19.0% 차지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127.1%(연평균 22.8%) 증가
 - (시도별) 2021년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 서울 25.1명, 부산 22.3명, 세종 21.8명
 - (성별) 2021년 여성(63만 334명)이 남성(30만 3,147명)의 2.1배
- [불안장애] 2021년 환자수 86만 5,108명, 2017년 대비 32.3% 증가
1인당 진료비 32만 4,689원, 2017년 대비 38.7% 증가
 - (연령대별) 2021년 60대 15만 9,845명, 전체 환자의 18.5% 차지
2017년 대비 2021년 20대 86.8%(연평균 16.9%) 증가
 - (세부상병별) 2021년 1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30만 8,571명, 2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20만 8,869명, 3위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20만 6,329명
 - (시도별) 2021년 인구 천 명당 불안장애 환자 대전 23.0명, 대구 22.4명, 부산 20.2명
 - (성별) 2021년 여성(53만 3,436명)이 남성(33만 1,672명)의 1.6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¹⁾과 불안장애²⁾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 1,164명 대비 2021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 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3,038억원에서 2021년 5,271억원으로 73.5%(연평균 14.8%)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3만 9,501원에서 2021년 56만 4,712원으로 28.5%(연평균 6.5%) 증가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8.51일에서 2021년 9.29일로 9.2%(연평균 2.2%) 증가했다.
 - 불안장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531억원에서 2021년 2,809억원으로 83.5%(연평균 16.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23만 4,148원에서 2021년 32만 4,689원으로 38.7%(연평균 8.5%) 증가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5.82일에서 2021년 6.72일로 15.5%(연평균 3.7%) 증가했다.

[표1]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

(단위: 명, 억원, 원, 일,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우울증	환자수	691,164	764,861	811,862	848,430	933,481	7.8	35.1
	진료비	3,038	3,647	4,152	4,515	5,271	14.8	73.5
	1인당 진료비	439,501	476,809	511,454	532,190	564,712	6.5	28.5
	1인당 내원일수	8.51	8.66	8.86	9.11	9.29	2.2	9.2
불안장애	환자수	653,694	710,510	743,083	780,384	865,108	7.3	32.3
	진료비	1,531	1,844	2,119	2,388	2,809	16.4	83.5
	1인당 진료비	234,148	259,466	285,122	306,045	324,689	8.5	38.7
	1인당 내원일수	5.82	6.06	6.28	6.59	6.72	3.7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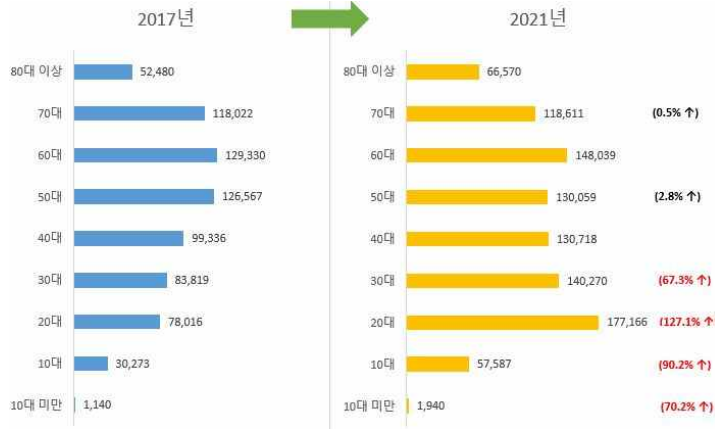
1) 우울증(주상병 기준): F32, F33(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2) 불안장애(주상병 기준): F40, F41(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우울증

- 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는 20대 127.1%(연평균 22.8%), 10대 90.2%(연평균 17.4%), 10대 미만 70.2%(연평균 14.2%), 30대 67.3%(연평균 13.7%)로 대폭 증가한 반면, 70대와 50대는 각각 0.5%, 2.8%로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12만 9,3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17만 7,166명)로 가장 많았다.

[그림1] 2017년 및 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현황



[표2] 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전체	691,164	764,861	811,862	848,430	933,481	7.8	35.1
10대 미만	1,140	1,243	1,493	1,350	1,940	14.2	70.2
10대	30,273	43,029	48,099	47,774	57,587	17.4	90.2
20대	78,016	100,598	122,039	148,136	177,166	22.8	127.1
30대	83,819	94,371	106,756	118,277	140,270	13.7	67.3
40대	99,336	106,764	113,422	116,660	130,718	7.1	31.6
50대	126,567	130,723	131,282	127,385	130,059	0.7	2.8
60대	129,330	136,019	137,497	139,883	148,039	3.4	14.5
70대	118,022	123,639	122,168	119,221	118,611	0.1	0.5
80대 이상	52,480	58,324	61,098	63,670	66,570	6.1	26.8

※ 환자수는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2017~2021년) 인구3) 천 명당 우울증 환자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3.3명에서 2021년 18.1명으로 36.1%(연평균 8.0%) 증가하였다.
- 시도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세종 131.9%(연평균 23.4%), 서울 43.4%(연평균 9.4%), 경기 41.0%(연평균 9.0%), 부산 39.4%(연평균 8.7%)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표3] 최근 5년(2017~2021년)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우울증 환자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전국	13.3	14.8	15.7	16.4	18.1	8.0	36.1
서울	17.5	19.8	21.2	22.2	25.1	9.4	43.4
부산	16.0	17.9	19.3	20.3	22.3	8.7	39.4
대구	14.7	16.7	18.1	18.5	20.1	8.1	36.7
인천	13.1	14.6	15.8	15.6	16.8	6.4	28.2
광주	13.9	15.2	15.7	16.9	18.9	8.0	36.0
대전	15.8	17.6	18.9	19.0	20.1	6.2	27.2
울산	11.2	11.8	11.7	12.0	13.5	4.8	20.5
세종	9.4	12.7	15.5	18.5	21.8	23.4	131.9
경기	11.7	13.0	13.8	14.6	16.5	9.0	41.0
강원	13.8	15.1	16.1	16.7	17.4	6.0	26.1
충북	14.8	16.5	17.6	18.5	19.9	7.7	34.5
충남	15.2	15.9	16.1	16.8	18.5	5.0	21.7
전북	13.6	14.4	14.9	15.2	15.3	3.0	12.5
전남	9.8	10.5	10.7	11.6	12.7	6.7	29.6
경북	11.7	12.6	13.4	13.9	14.7	5.9	25.6
경남	9.8	10.5	11.0	11.8	13.0	7.3	32.7
제주	16.6	17.7	18.3	19.2	20.0	4.8	20.5

※ (인구 천 명당 환자수) = (환자수) / (인구수) × 1,000명

- 2021년 우울증 성별·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63만 334명으로 남성 30만 3,147명의 2.1배였다.
-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많으나, 1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통계표(2022. 6. 3. 기준)

- 남성은 20대(6만 112명), 30대(4만 6,473명), 40대(4만 5,89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20대(11만 7,054명), 60대(10만 4,533명), 30대(9만 3,79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21년 우울증 성별·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남	303,147	1,230	21,157	60,112	46,473	45,898	42,206	43,506	35,512	19,064
여	630,334	710	36,430	117,054	93,797	84,820	87,853	104,533	83,099	47,506
여남	2.1	0.6	1.7	1.9	2.0	1.8	2.1	2.4	2.3	2.5

※ 환자수는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불안장애

- 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는 20대 86.8%(연평균 16.9%), 10대 78.5%(연평균 15.6%), 10대 미만 57.8%(연평균 12.1%)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 40대~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크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20.7%(13만 5,52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21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5%(15만 9,84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2017년 및 2021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현황



[표5] 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전체	653,694	710,510	743,083	780,384	865,108	7.3	32.3
10대 미만	2,154	2,173	2,394	2,778	3,398	12.1	57.8
10대	17,763	21,489	23,853	25,190	31,701	15.6	78.5
20대	59,080	70,229	80,969	92,713	110,351	16.9	86.8
30대	80,302	88,942	96,944	100,893	116,023	9.6	44.5
40대	112,805	121,239	126,009	128,644	144,477	6.4	28.1
50대	135,525	143,325	144,706	145,069	154,362	3.3	13.9
60대	121,334	130,238	134,117	144,045	159,845	7.1	31.7
70대	100,253	106,003	106,220	110,148	113,935	3.2	13.6
80대 이상	44,018	48,382	51,535	56,145	59,441	7.8	35.0

※ 환자수는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2017~2021년) 불안장애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가 1~5순위를 유지하며 환자수가 많이 나타났다.
- 불안장애 세부상병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 보면, '기타 불안장애' 197.3%(연평균 31.3%), '광장공포증' 167.7%(연평균 27.9%),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46.7%(연평균 10.1%)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6] 최근 5년(2017~2021년) 불안장애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

(단위: 명, %)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1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244,815	262,806	268,258	280,802	308,571	6.0	26.0
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160,033	173,539	183,028	192,789	208,869	6.9	30.5
3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140,667	162,372	173,331	182,451	206,329	10.1	46.7
4	범불안장애	79,038	82,143	83,397	87,539	98,898	5.8	25.1
5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26,991	27,679	27,116	28,324	33,113	5.2	22.7
6	광장공포증	10,002	12,616	18,198	22,817	26,774	27.9	167.7
7	사회공포증	19,010	20,007	20,650	18,465	19,376	0.5	1.9
8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9,157	9,587	9,727	10,723	11,945	6.9	30.4
9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6,557	6,817	6,835	6,305	6,310	-1.0	-3.8
10	기타 불안장애	1,479	2,573	3,248	4,317	4,397	31.3	197.3

※ 환자수는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불안장애 세부상병별 환자수 10순위는 2021년 환자수 기준으로 작성

- 최근 5년(2017~2021년) 인구4) 천 명당 불안장애 환자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2.6명에서 2021년 16.8명으로 33.3%(연평균 7.5%) 증가하였다.
- 시도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인구 천 명당 불안장애 환자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인천 42.3%(연평균 9.2%), 대전 41.1%(연평균 9.0%), 충남 40.9%(연평균 8.9%), 제주 40.5%(연평균 8.9%)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표7] 최근 5년(2017~2021년) 시도별 인구수 대비 불안장애 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연평균	'17년 대비 '21년
전국	12.6	13.7	14.3	15.1	16.8	7.5	33.3
서울	14.9	16.5	17.3	17.6	19.9	7.5	33.6
부산	15.7	17.2	17.8	18.5	20.2	6.5	28.7
대구	16.8	18.1	18.8	20.1	22.4	7.5	33.3
인천	9.7	10.9	11.7	12.0	13.8	9.2	42.3
광주	11.8	12.8	13.0	14.1	15.9	7.7	34.7
대전	16.3	17.7	18.9	20.0	23.0	9.0	41.1
울산	12.9	14.1	13.9	14.0	15.3	4.4	18.6
세종	8.0	8.8	9.1	9.3	10.3	6.5	28.8
경기	11.2	12.2	12.8	13.5	15.1	7.8	34.8
강원	14.1	14.8	15.5	17.2	18.8	7.5	33.3
충북	11.8	12.4	13.4	13.9	15.0	6.2	27.1
충남	11.5	12.6	13.3	14.9	16.2	8.9	40.9
전북	15.1	16.2	16.8	17.4	18.7	5.5	23.8
전남	11.3	12.1	12.2	12.8	14.0	5.5	23.9
경북	11.3	12.0	12.3	13.4	14.6	6.6	29.2
경남	11.7	12.6	13.2	14.4	16.1	8.3	37.6
제주	11.1	12.3	13.4	13.9	15.6	8.9	40.5

※ (인구 천 명당 환자수) = (환자수) / (인구수) × 1,000명

- 2021년 불안장애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53만 3,436명으로 남성 33만 1,672명의 1.6배였다.
-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0대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60대(10만 5,345명), 50대(9만 4,096명), 40대(8만 2,402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40대(6만 2,075명), 50대(6만 266명), 60대(5만 4,500명) 순으로 많았다.

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통계표(2022. 6. 3. 기준)

[표8] 2021년 불안장애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남	331,672	1,973	13,427	44,931	48,777	62,075	60,266	54,500	38,581	18,967
여	533,436	1,425	18,274	65,420	67,246	82,402	94,096	105,345	75,354	40,474
여/남	1.6	0.7	1.4	1.5	1.4	1.3	1.6	1.9	2.0	2.1

※ 환자수는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⁵⁾은 우울장애 7.7%, 불안장애 9.3%이며, 1년 유병률⁶⁾은 우울장애 1.7%, 불안장애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는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함이 느껴지면 친구, 가족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걷기, 조깅 등 신체적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증상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증상 초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가족 및 주위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5) 평생유병률: 평생동안 해당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

6) 1년유병률: 지난 1년간 해당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

※ 자료 분석 기준

-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17년 1월 ~ 2021년 12월
(건강보험 2017년 1월 ~ 2022년 4월 심사결정분 반영)
- ‘우울증’: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
- F32, F33
- ‘불안장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주상병을 기준으로 작성함
- F40, F41
-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약국 및 한방상병 제외
- 질병별 현황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자료로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진료시점 만(滿)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산출함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예: 동일인이 연도 중 나이가 변경되어 진료 받은 경우 각각 나이의 환자수로 산출됨)